

한양증권 인수전, '부동산 PF·리테일 집중도'서 매력 갈린다

KCGI, 우리투자증권 등 후보 언급 강성부펀드 'KCGI' 유력 후보자 우리투자, 리테일 매력도 떨어져 OK금융, 수익성 악화로 불투명

강소 증권사인 한양증권의 매각이 본격화하면서 KCGI, 우리투자증권, OK금융그룹 등 인수 후보군이 언급되고 있지만 인수 매력도에는 물음표가 찍혔다. 현재로서는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거론된 KCGI, 우리투자증권 등에 이어 OK금융그룹이 한양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OK금융그룹은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위해 증권사 인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풀기 현상을 보이는 증권사 매물이 시장에 나온 만큼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OK금융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실질적인 가능성은 낮은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증권 본사.

/한양증권

으로 전망됐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서 중장기적인 목표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 현재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강소증권사 한양증권의 지분 매각을 공식화했다. 한양학원은 특수관계인 포함 한양

증권 보통주 지분을 약 40.99%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기준 1900억원 수준인 시가총액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했을 시 매각가는 약 1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됐던 인수 후보자는 우리금융지주와 KCGI다. 우리금융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서의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투자증

권은 1조16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자본 기준 국내 증권사 20위권에 속한다. 우리금융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과 추가적인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검토를 언급했던 만큼, 한양증권 인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중론이다.

다만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이 1분기 말 기준 4964억원 수준으로 작은 규모이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력 충원에 집중했던 점 등이 우리투자증권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인수 계획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양증권은 IB 부문으로 특화돼 있고 최근 부동산 PF 쪽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보니 리테일을 원하는 우리투자증권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만약에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인수하게 될 경우라면 종투사나 초대형 IB까지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증권사라

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KCGI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된다"며 "KCGI는 자산운용사 인수 경험도 있고, 증권업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포스증권을 인수하면서 이미 증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황이다. 다만 KCGI는 한양증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증권업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투자증권은 은행지주를 끼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PF와 같은 분야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데, 한양증권은 올해 부동산 PF 관련 인력들을 강화했다"며 "이미 포스증권을 인수한 만큼 지점망이 많고, 리테일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증권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기준 한양증권의 지점은 서울(2), 인천(1), 경기(1) 지역에 총 4곳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인도 ETF, 증시 호조로 韓 투자자들 주목

인도 증시, 8만선 유지 상승세 지속 니프티50 지수 상승, ETF 수익률 급등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인도 증시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친시장과 정권과 '세계 1위 인구 대국'이라는 기반을 가진 인도 시장을 두고 나오는 전망들도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인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인도 증시는 최근 거래일인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뭄바이증권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인도 '센섹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6% 오른 8만 0716.55포인트, 인도국립증권거래소의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 지수'는 0.11% 오른 2만4613.0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이러한 인도 증시의 성장은 14억 명 인구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친시장과인 모디 총리의 세 번째 연임에서부터 비롯된다. 지난 6월 4일 인도 증시는 인도 총선 여파로 장중 한 때 7만포인트 선까지 하락했지만 모디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꾸준히 상승해 8만



/유투이미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증시 호조에 국내 인도 테마 ETF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ETF를 통해 인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인도 관련 ETF는 7개다. 인도 증시 대표 지수인 니프티5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인도Nifty50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TIGER 인도니프티50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 ▲KOSEF 인도Nifty50

(합성) 다섯 가지와 테마형인 ▲KODEX 인도타타그룹 ▲TIGER 인도빌리언 컨슈머 두 가지가 있다.

자산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개, 삼성자산운용이 3개, 키움투자자산운용이 1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7개 ETF 모두 상장 이후 수익률이 올랐으며, 실례로 상장된 인도 ETF 중에서 가장 늦게 상장한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ETF'의 순자산은 상장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 10일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의 경우는 지난해 4월 21일 상장 후, 16일 종가 기준으로 86.59%의 수익률을 올린 상태다.

또한 하반기 인도 시장을 두고 나오는 전망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돋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인도의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인도의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에 기인한다. 지난 3월 발표된 인도의 구매관리자 지수(PMI)도 60.5를 기록하며 인도의 경기 부양 상태를 나타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자산운용, ETF 브랜드 'RISE'로 탈바꿈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 슬로건

KB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명칭을 'KBSTAR'에서 'RISE'로 일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KB자산운용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증권사(MTS, HTS) 등 모든 채널에서 KB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명은 'RISE'로 바뀐다. 현재 KB자산운용이 상장한 ETF는

총 109종이다. 예를 들어 대표 상품 중 하나인 'KBSTAR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로 되는 식이다. KB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달 28일 ETF 브랜드명을 'RISE'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RISE'의 슬로건은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Rise Tomorrow)'다. 개인투자자들의 더 건강한 연금 투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KB자산운용은 올해 초 김영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ETF 사업의 리뉴얼을 준비했다. 브랜드 컨설팅 7개월 만에 새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를 꾀하면서 8년 만에 ETF 브랜드명을 바꿨다. 브랜드 변경은 KB자산운용 ETF 사업 방향과 브랜드 전략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한다. 연금계좌 등에서 노후자금 투자에 나서 개인투자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ETF 상품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계열사 통폐합 등 사업·구조 개편에 소액주주들 "명백한 기만 행위" 반발

두산 합병에 소액주주 불만 확산 두산밥캣 인적 분할해 흡수 합병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 교환

두산그룹이 경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계열사 통폐합 등 사업 재편에 나선 가운데, 기존 주주들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열사 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압도적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목토론펙 등에서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계열사 합병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그룹의 경영방식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역행하는 형태", "장기 투자한 주주들을 기만한 행위", "소액주주 지분 빼기가 밸류업인가" 등의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 11일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100% 완전자회사로 흡수 합병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상장사로 지위를 유지하지만, 두산밥캣은 상장 폐지된다. 상장 폐지될 두산밥캣 주주들은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받는다.

이 같은 방침을 두고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룹 입장에서 영업이익의 1조원이 넘는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합병함으로써 설립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를 안정적인 첨단제조사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두산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할합병에



/유투이미지

다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없다. 주주들은 흑자 회사인 두산밥캣의 주식 1주를 설립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 없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0.63주로 교환하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합병 결정에 대해 기존 두산밥캣 투자자 입장에서선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두산밥캣의 해외 주주를 중심으로 동사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과 배당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주주 간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도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했다. 이는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원관희 기자 wkh@